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 하정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하 정 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 의사
d28253@chol.com

대한민국 인구 정책과 저출산 현황

과거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너무 과밀하다는 인식으로 수십 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했다. 출산율이 추락하고 있던 동안에도 산아제한 정책이 지속되다가 극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매우 중대한 문제인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어 국가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1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만 있다. 출산율은 이미 OECD국가 중 최하이며, 2017년 올해 추정치가 1.03명 수준으로 추락해 버린 이제는 저출산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이다. 국가 위기 상황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함에 있어 의사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미래 저출산 해결 전망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되었으며, 이렇게 감소한 연령대가 출산할 시기가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 해 출생 신생아 수가 줄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한 명 이상 더 낳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출산에 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저출산은 왜 생겼는가?

저출산은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사회 현상의 결과이다. 그 사회 현상은 한마디로 출산 적기에 있는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적어도 두 명은 낳겠다는 생각이 사라진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는 예로부터 국가 유지와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화로 매우 중요시 되어 왔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할 출산 적령기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육아 문화 그 자체가 없다. 아이 키우는 문화가 없는 부부에게는 아이 한 명 출산은 가족 구성을 위한 본능에 가깝지만, 아이 두 명 낳기는 정말 선택사항일 뿐이다.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사라진 후에 나타나는 당연한 사회 현상이다.

누가 아이를 낳지 않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회 공통 현상이고, 엄마가 집에 있든 없든,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보육지원을 받든 말든 지원 유무와도 무관하게 공히 발생하는 현상이란 점이 중요하다.

경제적 지원이 모두 출산으로 연결되는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신 키워주겠다는 맞벌이 부모 보육지원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집에 부모가 있어도 두 돌 전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까지 한다.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고 직업을 구해주고 주거할 집을 마련해주고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 지원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지원으로 아이 한 명 낳은 부모 대부분이 한 명을 더 낳아서 저출산이 해결되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데 문제가 있다. 저출산 해결에서 반드시 고려할 측면은 국가와 사회가 해 주는 지원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부부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는 부모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한 명 키우는 부모가 둘째를 또 낳고 싶어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아이 한 명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정책과 아이 한 명 낳은 부모가 둘째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정책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 국가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해야 한다.

지금 같은 저출산 해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물론 현재와 같은 저출산 대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저출산이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1명이 아니라 아이를 2명 이상 낳아야 해결된다. 둘째 아이는 대개 첫째가 3살이 되기 전에 출산하므로 첫째가 2돌이 되기 전에 둘째를 갖기로 결정해야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다. 지금 같으면 아무리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줘도 한 명 더 낳기로 결심하기는 어렵다. 원래 아기 키우기는 특별한 부모가 아닌 보통 부모들이 남다른 각오가 없어도 쉽고 재미있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많은 부모가 집에서 아이 1명 키우면서 쩔쩔매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따로 아이 돌보는 분을 두고서도 심한 경우 온 가족이 매달려도 아이 한 명 키우기를 힘들어 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엄마들 사이에 제일 무서운 말이 아이 한명 더 낳으란 말이란,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 현재는 아기 한 명을 두 돌까지 키우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말하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다. 둘째를 낳기로 결정하는 것은 두 돌 이전이다. 이 시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애 못 키우겠다는 부모에게 다른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 지원이 둘째를 낳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만일 첫째를 키울 때 쉽고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키울 수 있으면 둘째를 낳지 말라고 말려도 낳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이 키우기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가족과 이웃이 항상 어울려 살면서 주위에 늘 애들이 있었다. 사회구성원들이 항상 아이 키우는 것을 보고 참여했으므로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일상에서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육아 문화이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격하게 핵가족화 되면서 지금 부모들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고 제대로 본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아이를 키운 적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키우는 육아 방법을 모르는 부모와 사회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시대가 변해서 과거 육아 문화가 사라졌지만 그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아

이를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그리고 의학적 육아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아문화가 사라진 지 한참 지난 지금도 부모가 아이를 쉽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키울 수 있는 육아를 지원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은 없다. 육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급격하게 바뀌는데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때

육아란 문화이다. 지금 우리나라 부모 중에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육아 문화는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제대로 된, 표준화 된 육아정보는 보기 힘들고 육아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도 없다. 아이를 키우면서 문제가 생겨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문제를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 당연히 재발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아기를 키우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부모가 혼자서 인터넷 뒤지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아이 낳기 전에는 낳으면 누군가 다 해결해 줄 듯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아무 것도 모르는 부모 혼자서 다 뒤집어쓰게 되었고. 그래서 독박육아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

육아는 의사의 전문 분야이다.

육아는 의사가 전문인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는 출생 시부터 성장기 아이들을 돌보는 과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분야는 크게 4분야, 즉, 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는 분야와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접종분야와 성장발달을 관리하는 분야와 건강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육아 분야로 나누어진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부분과 건강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를 wellbaby care라고 부른다. 이 부분의 핵심이 바로 육아로서, 소아청소년과의 전문 영역이다.

어릴 때 아기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장차 100년 이상 그 나라 국민 건강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나라 부모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면서 육아지식을 얻고, 문제를 확인하고 발생한 문제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 육아는 신생아 검진,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분유수유, 영·유아 돌보기, 수면, 이유식, 훈육, 정상성장, 언어 발달, 인간관계 형성, 식습관, 식이 문제 안전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질병 치료 영역만큼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육아진료는 단순하게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2돌까지는 정기적으로 육아검진을 하고 육아문제를 발견하고 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 대가족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있을 때는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육아 분야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역할이 그리 절실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아청소년과 의사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다. 대가족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육아문화가 사라진 지금,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육아 전문가인 동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통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전국적인 육아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아이 치료하는 분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거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 키우는 육아 분야는 질병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리 오랜 시간 상담을 해주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육아 문제를 해결해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기본 진찰비용 외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육아 상담을 아무리 길게 해줘도 약 처방전이 나가지 않으면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진료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 결과 육아분야는 제대로 된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료를 갖추지 못하면 핵심 사회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 중 질병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이들의 질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 중 육아진료를 하지 못하면 질병 치료 실패 이상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다. 아니 이미 발생하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출산이 바로 그것이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생기는 문제이지만 여타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해도 가장 핵심 소프트웨어인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투자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까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미숙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2-3세부터 보육이 중요하다고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하고 저출산 해결에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인 2살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데 필요한 육아 인프라에는 거의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 육아문화가 사라진 지금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육아 인프라를 의료보험 체제 내에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정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곤란한 이야기이다. 이제는 육아 인프라구축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의료보험 내 통제가 아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 한 명 더 낳을 결심을 하게 되는 2살 이하 아이 부모가 쉽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서 둘째를 낳고 싶어 하는 육아문화를 만들어주는 인프라 구축이 야말로 정말 시급한 일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은 쉽지 않다.

육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문화이므로 육아 문화가 무너진 현재 단순하게 한 분야 강의를 하거나, 단순히 육아 지침을 알려 주거나, 한두 번 상담으로 아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도록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질병과는 달리 각 분야에서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부모 상담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이 모든 것을 적시에 필요한 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감기나 중이염 치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특히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한 전혀 다른 독립적인 진료 분야이다. 실제 육아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제대로 가동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릴 터이다. 육아란 문화이다. 지금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다가 국가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해주는 인프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육아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런데 과학에 기반한 근거가 없는 엉터리 육아 정보나, 한 방향으로 편중된 이야기, 문화적이고 실제적인 육아법이 아닌 이론적 지식을 나열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많은 부모들을 아이 키우는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이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인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아이 키우기 힘들어 죽겠다는 부모들을 살리고, 의료보험 때문에 질병 치료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정상화시키고, 저출산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소위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었다는 육아진료 체계를 개혁하여, 아이 키우는 부모가 실제 도움이 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근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을 바꾸고 적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키울 수 있고 아이 키우기가 보람 있는 일이 될 때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육아를 위한 사회 문화 복원

소아청소년과 영역만 육아 인프라를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일이든 알면 아는 만큼 쉬워지고 관심이 많아지고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다. 아기를 키우는 육아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면이 보일 때 회피하고 싶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육아에 대해서 아기 키우기 전까지, 심지어 키우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나 지인들의 모습에 미래에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보다는 두려움부터 가지는 경우가 많다. 모르니까 남에게 의지하려 하고,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 한다. 아기 키우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을, 알고 보니 즐겁고 쉽고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바꾸어 “이 즐거운 일은 내가 해야지” “나는 한 명 더 키워야지” 하는 방식으로 즐거운 육아로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 키우기가 즐겁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어 주고 아이 키우는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창 시절부터 가정생활과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야 한다. 육아에 대해 약간이라도 알아야 주위에서 아이 키우는 것을 볼 때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 대학교에서는 교양과정으로 실제로 출산한 부모가 아가를 직접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대학생들에게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분유수유, 수면, 이유식, 훈육, 정상성장, 언어 발달, 인간관계 형성, 식습관, 식이 문제 안전 등 모든 분야를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필수 교양이 어디 있겠는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도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은 동네에 같이 놀 아이들이 없다. 또래끼리 어 울려서 놀 수 있도록 이웃과의 관계도 복원해야 한다.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인재양성 문제

저출산 해결은 정말 중요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육아전문인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눈에 보이는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절박한 바람이 있다. 양보다 질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모자라면 이민을 받을 수 있지만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지금 저출산 해결이라는 양적인 문제의 해결에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해결의 방향이 인재 양성이라는 질적인 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은 없는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